

마야*의 이야기

마야*는 러시아 극북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마야의 아버지는 석유 시추공으로 일했고 몇 주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그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야*의 어린 시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7살이었을 때, 마야의 아버지는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야*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여자 아이들에게 남자 아이들보다 부성애를 훨씬 많이 필요로 하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면 종종 그것을 찾는 데 평생을 보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야*에게 일어난 일 같습니다.

마야의 이야기는 왓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야*에겐 여섯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야*는 매우 강하고 지능적이며,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사랑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남자들은 마야에게 매우 강력하고 슬프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삶을 파괴했습니다.

첫 남자친구는 그토록 꿈꾸던 대학을 떠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는 범죄 조직의 리더였고, 그 결과 마야*는 남자친구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조직의 매우 적극적인 일원이 되었습니다. 조직에서 마야*는 카드 게임과 다양한 종류의 절도 전문가가 되는 등 두 가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그녀는 약물을 포함한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야*는 이미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심한 약물을 계속 남용했다면, 아마도 그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야*는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싫어하는 남자와 다시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마약에서 알코올로 갈아타도록 도왔습니다.

다음 남자친구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마야는 그의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함께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지만(그는 유대인), 곧 이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기꾼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가족의 돈을 훔쳤고, 아내와 아들을 부양할 수단 없이 정기적으로 떠났습니다. 마야*가 사랑에 빠지고 보니 남자는 사이코패스이자 학대자였습니다. 마야*는 8년 동안 그와 함께 살며 구타와 괴롭힘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음주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어느 시점에 두 아들 모두 사회 복지부에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야*는 다른 남자를 만나 브엘세바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로 드러난 그는 곧 사망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여성 보호소의 봉사자 중 한 명이 길을 걷다가 마야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끔찍했고, 봉사자는 그녀에게 보호소에서 재활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야*가 동의하고 당장 저희를 찾아온 것이 약 10개월 전이었습니다.

마야*의 재활 치료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고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야 같은 사람이 완전히 깨끗한 삶을 꾸려가며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야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를 훔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며, 여전히 남자들로부터도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이러한 욕구에 놀라울 정도로 잘 대처합니다. 그녀가 이 땅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와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

저희 재활센터의 빌헬름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상당한 기간 동안 장로로 섬긴 끝에 이번 안식일에 그는 브엘세바의 저희 사막의 꽃 공동체 공동 목회자로 안수 받았습니다. 빌헬름이 리더로 성장하고 그의 교회와 재활원 사역 모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텔아비브 아웃리치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사람들이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비브 센터로 오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최근 한 난민이 센터에 왔는데 저희가 식사를 제안하자 거절하고 자신과 고국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했고, 방문객들에게 아비브 센터는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치고 치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야*의 건강 문제, 그리고 아들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또한 타미*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주님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크게 축복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도브, 올가,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Wilhelm in the church



A street addict in Tel Aviv



Prayer in Aviv Center



A birthday celebration in the Shelter